

가족도 몰랐던 화가의 삶, 미술계 수집광이 들려주다

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20일 '화가와 아카이브展'

#1. “저는 아직 남 앞에 자랑할 만한 작품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남도 아닌 자기 나라 선배들에게 기막힌 모욕을 당할 줄이야.” (이우환 화백, 1969년 4월3일 선배 고 이세득 화백에게 보낸 편지 중)

#2. “1938~45 선만적 특선 조선교육회상, 일본국대판조일신문사상 수상, 선전 12회 부산전(특선 부산일보사상 수상) 등 출품. 46~50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(특선 대통령상 수상), 대한미협전(회원) 등 출품”(고 류경재 화백이 1965년 작성한 친필 이력서 중)

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(이하 김달진박물관)은 국내 근현대 미술관련 자료의 보고다. 김달진 관장이 수집해 온 각종 미술관련 자료는 주요 전시의 필수 요소가 됐다.

서울시립미술관은 지난 8월에 연 ‘천경자1주기 추모전’ (“바람은 불어도 좋다. 어차피 부는 바람이다”)에 김달진박물관 소장품을 전시했다. 고 천경자 화백이 표지를 그린 1954년 3월호 문예, ‘천경자 남태평양풍물시리즈전’ 엽서 등 관련자료 25점이 이 박물관 소장품이다. 국제갤러리 주최로 지난 4월까지 벨기에에서 연 ‘단색화와 한국 추상미술전’에도 김달진박물관 소장품이 전시됐다. 1966년 ‘고 권영우 작품전’, 1962년 ‘고 김환기 미술전’, 1970년 ‘박서보 유전질전’ 등 관련자료 21점이

다. 김달진박물관 소장품을 빼고는 국내 근현대 미술전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님을 보여준다.

김달진박물관이 2008년 개관 이후 ‘가장 사적인 기록물’을 선보이는 아카이브(기록물) 전시를 기획했다. 전시명은 ‘작가가 걸어온 길-화가와 아카이브’다. 예술가의 친필편지, 이력서, 연하장, 방명록, 사진, 기록 문서들이다. 작가의 필적이나 생각을 엿볼 수 있고 작가가 맺은 인적 네트워크도

거장이 50년전 쓴 편지부터 이력서·방명록·팸플릿까지 가장 사적인 기록물 선보여 “처음보는 자료” 유족도 감탄

파악할 수 있다.

이우환 화백(80)이 33세에 고 이세득 화백에게 보낸 편지는 일본 도쿄에 체류하던 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. 이우환은 선배 화가에게 고국의 작가들에게 외면당하는 처지에 슬픔을 토로했다. 이뿐만이 아니라 졸업장이나 상장, 이력서도 있다. 공문서는 미술계의 사건 진행과정을 알 수 있게 한다.

인쇄물도 선보인다. 1949~1969년 대 팸플릿으로 당시 전시 출품작을 상세히 수록했다. 김달진박물관 측은 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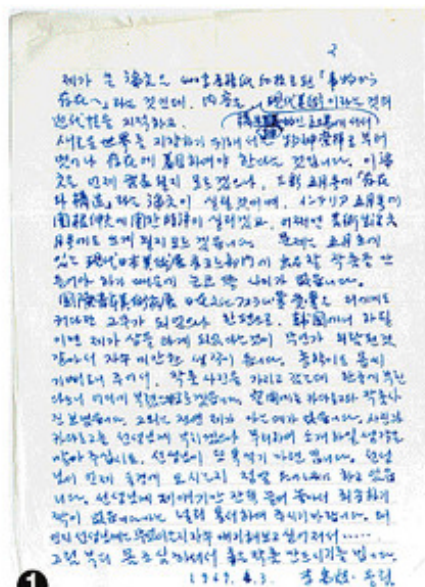
플릿에 대해 “정기 간행물, 단행본의 표지 및 기사와 저서 등 전시와 더불어 작가가 일반 대중과 소통하는 중요 창구”라고 규정했다. 원로화가 김정희의 초상 드로잉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다. 박물관은 ‘서경대전’(書經大全·1717년) ‘조선아동화담’(朝鮮兒童畫談·1891년) 등 고서적도 소장하고 있다.

김달진 관장(61)은 “이번에 선보일 기록물은 2008년 개관 이후 가장 사적인 물품으로 채워진다”며 “헌책수집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발견한 경우도 있고 관계자에게 기증받기도 했다”고 말했다. 이렇다 보니 관객보다 예술인의 가족들이 더 감사해 한다. 올해 홍지동 김달진박물관을 다녀간 거장의 유족이 방명록에 쓴 글에는 자신들도 미처 몰랐던 어머니, 아버지와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한 김 관장에게 감사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.

“선생님 감사합니다. 처음 보는 아버지 관련 자료를 보며...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.”(고 유영국 화백의 차녀 유자야 유영국미술문화재단 이사)

“관장님이 중학생 때부터 모으셨다는 어머니 관련 잡지기사 등 이렇게 귀한 자료를 만날 줄 몰랐습니다.”(고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)

전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4월29일까지 이어진다. 김지훈 기자 lshy@



- 1 이우환 화백이 1969년 선배 고 이세득 화백에게 보낸 친필 편지 첫 번째 장.
- 2 김달진 박물관장이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.
- 3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소장품인 ‘조선아동화담’.

/사진 제공=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